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20.10 [22~26]

(가)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짜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 집 뒤에 자차리 뜰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가장밤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  
 조석에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늪어 해을 일 없어 산중에 돌아오니  
 송국(松菊) 원학(猿鶴)이 다 나를 반기나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망우(樂而忘憂) 하리라  
 <제10수>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머하노 무릉인인가 하노라  
 <제14수>

\* 산채갱 : 산나물로 만든 국.  
 \* 므로 : 폭.  
 \* 홍하 : 붉은 노을.

(나)

별이(別異)실 외딴 마을 해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封堂)에 자리 보아 더새고\* 가자꾸나  
 밤중(中)만 사립 밖에 긴 바람 일어나며  
 새끼 곰 큰 호랑(虎狼)이 목 갈아 우는 소리  
 산골에 울러 있어 기염(氣焰)도 흥난할샤\*  
 칼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새워  
 앞내에 빠진 옷을 꺾어서 손에 쥐고  
 ㉡ 긴 별로(別路) 돌아 달려가 별불에 쬐어 입고  
 진(秦) 때의 숨은 백성 이제 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러니  
 천변(天邊)의 가려진 피 대관령 이었으니  
 위태로 높은 고개 축도난\*이 이렇던가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 산악을 일야의 혼드는 듯  
 밭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영축\*이 있었던가  
 <제14수>

\* 더새고 : 밤을 지내고.  
 \* 기염도 흥난할샤 : 기세가 어지럽구나.  
 \* 축도난 : 축나라로 가는 험난 길의 어려움.  
 \* 영축 : 가득 차는 것과 줄어드는 것.

(다)

정업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데,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 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이다 보니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

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마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나 보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 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다는 그 진(秦)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네. 나는 그곳에 누대를 지어 놓았는데 마침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만일 가 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한 백 발자국 남짓 올라가자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다.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다. 그 누대의 섬돌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 ㉢ 그래서 물을 배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 누대의 아래 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오직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의 좌우에 늘어서 있어서, 그 나무의 떨어지는 꽃잎이 붉은 비가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갔다.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출렁출렁 춤을 추었다. 옛날 사람이 일컫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 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

당나라 사람 조영이 그의 시에서 ‘무릉도원의 멋을 저자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 뜻을 이해야 알 것 같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았겠지. 내 이 물에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하여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속세를 벗어난 경지가 참으로 이런 것인가?

- 이수광, 「침류대기」 -

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보율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A]~[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중국의 「도화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 진(秦)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 ①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 ③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넷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군.
- ⑤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3. (나)의 화자의 심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군.
- ②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군.
- ③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군.
- ④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제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군.
- 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군.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 : 누대가 놓인 형세를 토대로 누대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 ④ ㉣ : 은밀하게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 :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게 된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보기>

중국의 「도화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 진(秦)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 읽기 전 활동

(가), (나), (다) 시가 모두 ‘무릉도원’과 유사한 현실 속의 공간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기>입니다. 시에서 드러나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현실 속 공간과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얻는 만족감에 집중하여 읽는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연못 위에 대를 싸니 바람, 달, 안개, 노을이 좌우로 오는 아름다운 경관이 완성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한가히 앉아 늙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있는 장소가 <보기>에서 언급한 이상향에 가까운 현실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  
조석에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 산채갱 : 산나물로 만든 국.

\* 므로 : 폭.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집 뒤에 자차리를 뜯고 문 앞에서 맑은 샘을 길어 밥과 국을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화자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늪어 해을 일 없어 산중에 돌아오니  
송국(松菊) 원학(猿鶴)이 다 나를 반기나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망우(樂而忘憂) 하리라

(제10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늪에서 속세를 떠나 산중에 돌아오니 소나무, 국화, 원숭이, 학이 모두 자신을 반긴다고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또한, 아이에게 술을 부으라고 말하며 즐거이 시름을 잊는 낙이망우의 자세를 갖는 화자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마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제14수)

\* 홍하 : 붉은 노을.

- 김득연, 「산중잡곡」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가장 크게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무릉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붉은 노을이 만개하니 마치 무릉도원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살아가는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에서 언급한 삶 속에서 연상되는 무릉도원을 시를 읽으며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나)

별이(別異)실 외딴 마을 해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封堂)에 자리 보아 더새고\* 가자꾸나  
밤중(中)만 사립 밖에 긴 바람 일어나며  
새끼 곰 큰 호랑(虎狼)이 목 갈아 우는 소리  
산골에 울려 있어 기염(氣焰)도 홀난할샤\*

\* 더새고 : 밤을 지내고.

\* 기염도 홀난할샤 : 기세가 어지럽구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별이실 외딴 마을의 해가 빠르게 넘어가니 봉당에 자리를 보아 잠자고 가자는 화자입니다. 밤중에 사립 밖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꿈과 호랑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기세가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새워  
 앞내에 빠진 옷을 칩싸서 손에 쥐고  
 긴 별로(別路) 돌아 달려가 별불에 죄어 입고  
 진(秦) 때의 숨은 백성 이제 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러니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렇게 불안한 밤을 칼 빼어 놓고 새운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냇가에 빠져 젖은 옷을 불에 말리고 입자 어느덧 화자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봉변을 당했음에도 자연의 모습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보기>에서 언급했던 진나라의 숨은 백성들이 다시 와도 무릉도원이 이곳보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변(天邊)의 가려진 피 대관령이었으니  
 위태로 높은 고개 축도난\*이 이렇던가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 산악을 일야의 혼드는 듯  
 밭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영축\*이 있었던가  
 - 권섭, 「영삼별곡」 -  
 \* 축도난 : 축나라로 가는 험한 길의 어려움.  
 \* 영축 : 가득 차는 것과 줄어드는 것.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자신이 머물고 있는 대관령의 경치에 대해서 서술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높은 고개는 마치 축나라로 가는 험한 길의 어려움과 같으며, 하늘에 돋은 별을 손 뻗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넓은 대양이 그 앞을 둘러 대지와 산악을 바닷으로 혼드는 듯, 밭 없는 큰 구렁이에 쌓인 물이 만고에 줄지 않고 한결같다며 바다의 경치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에서 언급했듯 화자가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러니’라며 자신이 위치한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관령과 그 앞 바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다)  
 정업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데,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 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어 보니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마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나 보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 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다는 그 진(秦)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정업원동의 아름다운 경관을 주제로 글쓴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록국에서 일하는 글쓴이는 일찍부터 이곳을 지나고 있었으나, 직책에 얽매어 한 번도 이곳을 조용히 찾을 수 없어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가 시냇물이 흐르고 꽃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무릉도원이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글쓴이가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에서 말했듯 무릉도원에 대한 진나라 사람들의 고사를 인용하며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네. 나는 그곳에 누대를 지어놓았는데 마침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만일 가 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한 백 발자국 남짓 올라가자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다.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다. 그 누대의 섬돌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 누대의 아래 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오직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의 좌우에 늘어서 있어서, 그 나무의 떨어지는 꽃잎이 붉은 비가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갔다.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출렁출렁 춤을

추웠다. 옛날 사람이 일컫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

당나라 사람 조영이 그의 시에서 '무릉도원의 멋을 저갯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의 말을 들은 유희경이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글쓴이를 초청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유희경이 머무는 곳의 경치를 서술하고 있는데, 침류대의 이름에 대한 생각, 복숭아나무에 만개한 복숭아 꽃과 이러한 꽃이 떨어져 흘러내려가는 개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당나라 사람 조영의 말을 인용하며 이러한 풍경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역시나 <보기>에서 언급했듯 무릉도원이 이곳보다 낫지 않을 듯하다며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았겠지. 내 이 물에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하여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속세를 벗어난 경지가 참으로 이런 것인가?  
- 이수광, 「침류대기」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글쓴이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글쓴이는 옛 고사를 인용하며 유희경을 '유신'에, 자신을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를 통해 글쓴이가 속세에서 벗어난 곳의 풍경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보기>에서 언급했듯 글쓴이가 유희경의 추천으로 가게 된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이를 무릉도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이 가게 된 곳에서 느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이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둘 사이에 '한가히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일치하게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이 사이'와 '산중'은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 '이 사이'는 '풍월과 연하'가 '좌우'에 놓인 공간으로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는 공간입니다. 또한, '산중'은 '낙이망우'하는 곳으로 걱정을 잊고 즐기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③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룬 화자가 갖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어휘입니다. 이는 '늙는 줄을 모르리라'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알면 수월하게 알 수 있습니다.

④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기장밥'과 '산채갱'은 각각 기장으로 지은 밥과 산나물로 지은 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소박한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이의 고뇌를 나타낸 것이다.

→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풍류적 지향을 드러낼 뿐, 정신적 수양과의 고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내용에서 고뇌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정신적 수양을 추구하는 부분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수월하게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가)의 경우 '이 몸이 또 어떠하뇨'라고 묻고 '무릉인인가 하노라'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②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나)의 경우 '봉당'에서 밤을 지새고 '긴 별'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시상 전개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나)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경우 대관령의 산에서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라며 별을 만질 수 있을 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장적 표현으로, 대관령의 높이에 감탄하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음보율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의 경우 모두 4음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의 활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경우 ‘새끼 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음성 상징어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A]~[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②

—< 보 기 —

중국의 「도화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 진(秦)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①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A]는 ‘흥하이 만동하니’ 이곳이 도원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지어 화자는 ‘이 몸이 또 어때하노 무릉인가 하노라’며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②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군.

→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봉당에서 벗어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곳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B]는 봉당을 벗어나 긴 별로 돌아 달려간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③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무릉도원’에 ‘수백 년 전 진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 ‘진 때의 숨은 백성 이제 와 보게 되면 /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러니’라며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C]의 경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 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다는 그 진나라 사람’을 만나 보겠다면 자신이 머무는 장소가 이상향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④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군.

→ [C]와 [D]의 경우 ‘복숭아나무’의 ‘꽃’이 떠내려오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C]의 경우 뒤이어 등장하는 유희경의 말을 통해, [D]의 경우 글쓴이의 서술을 통해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⑤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 [B]의 경우 여행지에서 체험한 ‘대관령’의 풍경을, [D]의 경우 유희경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4. (나)의 화자의 심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①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군.

→ (나)의 화자는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기염도 홀난할사’라며 기세가 어지러움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갈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새’우는 화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군.

→ 화자는 ‘위태코 높은 고개 축도난이 이렇던가’라며 대관령의 길이 몹시 험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한 이유는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③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군.

→ 화자는 ‘봉당에 자리보아 더새고 가자꾸나’라며 인가에 머무르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봉당이 인가임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틀린 선지임을 파악해야 합니다.

④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군.

→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치 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군.

→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라며 바다를 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 ㉡ 긴 별로(別路) 돌아 달려가 별불에 쬐어 입고
- ㉢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 ㉣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 ㉤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① ㉠: 자신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은 집 뒤에 자차리를 뜯고 문 앞에 맑은 샘을 길어 식사 준비를 하는 화자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② ㉡: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의 경우 ‘별불에 쬐어 입고’라며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③ ㉢: 누대가 놓인 형세를 토대로 누대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 누대가 놓인 형세가 ‘물을 베고 있’는 듯하다고 생각한 화자가 누대에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④ ㉤: 은밀하게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유신’이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유희경이 살고 있는 경치가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⑤ ㉤: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게 된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온갖 잡념이 가시’고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것 같’은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